

##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민원공백 최소화 총력

광주광역시 대변인실

빛깔이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 전남광주를 포함한 전국 민원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민원서비스가 단일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니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모

- 29개 자치단체
- 국민 약 317만명
- 3만 6천여 명 공무원 관련
- 대규모 시스템 통합 작업 추진

광주시,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민원공백 최소화 총력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 행정시스템 통합 전환, 비상대응체계 본격 가동

#### 민원서비스·정부24 일부 이용 제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작업에 따른 민원서비스 일시 중단에 대비해 본격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민원서비스 중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정보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데이터 전환 작업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다. 통합 대상 시스템만 총 495개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정 통합 작업인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작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구와 긴밀한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시스템 통합·전환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혹시 모를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상황 공유와 즉각적인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출범일인 7월1일 오전

9시 이후 즉시 모를 서비스 지연사태에 대비해 민원분야별 비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자치구 간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도 역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 중단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주말인 6월27일부터 28일까지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일시 제한된다.

이어 출범 직전 야간인 6월30일 오후 6시부터 7월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및 토지대장 발급, 납세증명서 등 78개 시스템이 연계된 '정부24' 일부 서비스와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상수도 누리집 등 광주시 자체 대민 서비스 5종도 이 기간 함께 멈춘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누리집 공지, TV 자막 방송,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관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각급 기관과 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해 시민들이 서비스 전환으로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전은옥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첫걸음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민원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스템 전환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서류 발급이나 지방세 납부 등 필요한 업무는 서비스 중단 이전에 미리 처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

### 현대차그룹, '2026 해피무브'

#### 발대식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24일(수)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026 해피무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해피무브'는 해외 봉사 활동 및 문화 교류 경험을 통해 대학생

들이 미래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대차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CSR) 활동으로 지난 2008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1만 3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현대차그룹 전

략기획담당 성 김 사장, 전략기획실장 김동욱 부사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와 해비타트 마희자 이사장, 월드비전 나윤철 부문장, 플랜코리아 김병학 본부장, 대학생 봉사 단원 200여 명, 직원 멘토 등이 참석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해외 봉사 활동 ▲문화 교류 ▲현대차그룹 해외 사업장 견학을 중심으로 오는 7-8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진행된다. 현대차그룹 전략기

획담당 성 김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장에서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인 만큼 '해피무브'를 통해 새로운 시야와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국내 오리엔테이션 이후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봉사 및 문화 교류 진행

앞서 현대차그룹은 5월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026 해피무브' 단원을 최종 선발했다.

전국 대학생 모두에게 성별, 나이, 지역, 전공과 무관하게 공정한 지원 기회를 제공했으며 선발된 단원에게는 항공료와 현지 활동비 등 필요한 제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단원들은 발대식 직후 2박 3일

간 열리는 국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해외 봉사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을 이수하고 문화 교류를 위한 준비 등을 마친 뒤 국가별로 파견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격차로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녹지 감소로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등의 환경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이가영 기자

